

광주시 공공기관 신규 직원 첫 통합연수 ‘눈길’

도시공사 등 16개기관 62명 참여
실무역량 교육·적응 노하우 공유
강 시장, ‘토크콘서트’ 진행 ‘호응’
“공공가치 공유·기관간 교류 강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새내기 직원들이 처음으로 통합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 광주시관광공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광주시 공공기관에 새로 채용된 직원들은 이날부터 28일까지 5일간 광주시인재교육원에서 통합연수를 실시한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광주시 공공기관 새내기 직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시민 행복을 위해 동행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고 공감했다.

이날 시장과의 토크콘서트는 광주시 시장·시책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60여 직원이 행사 직전 즉석에서 종이에 질문을 적으면, 강 시장이 이에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내기 직원들은 ‘광주관광의 장점과 약점’, ‘도시철도 개통시기 및 추진방향’, ‘승진 빨리하는 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 업무 관련 질문과 개인적 관심사 등 다양하게 질문했다. 또 생활에 밀접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광전사무선,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새내기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광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시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간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파트너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동행전략을 마련, 지역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 공공기관 혁신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교부세 8억원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강 시장은 또 이날 새내기 직원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강 시장은 “나는 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일은 하면 안 되나봐”라며 벽을 치거나 스스로에게 한

계를 짓지 않길 바란다. 생각을 뒤집으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 이러한 전환을 통해 한발한발 나아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대화에 참석한 한 신규 직원은 “시장님이 무대에서 내려와 신규 직원들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벽을 치지 않는 일하기”를 통해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통합재용으로 선발된 공공기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통합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통합연수는 광주시인재교육원 주관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광주시 공공기관 16곳, 62명의 신규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연수는 기존 기관별로 제각각 시행했던 신규 직원교육을 통합, 광주시의 정책목표와 공공가치를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를 도와 신규 직원들이 기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 시장 토크콘서트로 문을 연 이번 연수에서 신규 직원들은 예산·회계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과 데이터 교육, 비즈니스 매너, 직업윤리 등을 학습한다. 특히 기획과 홍보에서 달인급 실력을 갖춘 선배들의 노하우 전수와 1년 먼저 채용된 선배들의 생생한 적응 노하우도 공유한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민간플랫폼 활용 서포터즈 홍보

배달의민족·티맵 등 연계

전남도는 수도권 청년과 20~30대 엠지(MZ)세대의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 확대를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배달의 민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가입 쿠폰 이벤트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2만명이 신규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가입자가 57%, 20~40대가 85%를 차지하면서 수도권 청년층과 MZ세대의 서포터즈 가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21일부터는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이용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홍보도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TMAP) 이용자를 대상으로 티맵 대리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서포터즈 가입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티맵(TMAP)앱과 전남 사랑에 100만 서포터즈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에게는 전남도 내 관광, 숙박, 음식점 등 590여 개 할인가맹점 할인 혜택과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1만원 쿠폰, JN투어 남도숙박 1만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오지현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24일 광주 북구 북광주 새마을금고 본점에 선거 벽보와 선거 참여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양배 기자

강 시장, 화재현장 파손책임 논란에 “행정이 책임”

“소방관, 시민안전 전력해 달라”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에게 부쉬진 현관문의 수리비를 물게 해야 하나’라는 논란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에서 책임진다. 소방관들은 걱정 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쉬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월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노병하기자

무안공항 참사 56일만에 의료·훈련 비행 재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56일 만에 응급 의료와 교육 훈련을 위한 비행을 재개했다.

24일 무안국제공항과 항공고시보 등에 따르면 항공당국은 전날 오후 9시부터 구조·수색이나 의료 후송을 위해 관제탑의 승인을 받은 비행을 허가했다.

또 교육 기관이 주간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사용하지 않은 시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대학 5곳과 민간 기관 3곳 등 모두 8곳의 교육기관이 항공기 21대를 이용해 비행 훈련을 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이날 오전부터 이착륙 직전의 코스를 집중적으로 비행하는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

다만 민간 여객기 운항은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 등 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오는 4월 18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비행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객기 운항도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남도한바퀴’ 봄 시즌 테마상품 운영

홍매화정원 등 21개 신규 코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가 봄 시즌을 맞아 전남의 다채로운 매력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 상품을 선보인다.

전남관광재단은 이번 봄 코스는 봄꽃 명소, 자연경관, 고택, 역사 유적지 등 아름다운 전남의 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21개 코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는 계절별 테마에 따라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남도의 관광·문화·생태·미식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1만 2900원부터 시작하는 착한 가격으로 운

영하고 있다. 이에 작년엔 총 1025회 운행, 2만8338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유스퀘어, KTX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남도한바퀴’는 각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관광객들이 전남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의 봄을 즐길 수 있는 주요 봄 코스로는 △첫 홍매화축제가 개최되는 홍매화정원과 무안 식영정을 들르는 ‘꽃향기 머무는 신안·무안여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와 낙안읍성, 팔영산편백숲을 거니는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순천·고흥여행’ △해남 대흥사와 벚꽃 명소인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국립나주박물관을 관광

하는 ‘봄빛 속 옛이야기 해남·영암·나주여행’ △운주로고택과 섬진강 벚꽃 길을 지나는 ‘벚꽃 흠날리는 섬진강 구례여행’ 코스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관광재단 김영신 대표이사는 “남도한바퀴는 전남의 아름다운 봄을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전남의 매력을 경험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개 각 코스별 자세한 내용 확인과 예약은 남도한바퀴 홈페이지(<http://citytour.jeonnam.go.kr>) 또는 전용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통학로 현수막·불법유해 광고물

광주시가 어린이 안심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개학을 맞아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50m 이내)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 다.

광주시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각종 모집 안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교육청에 자체 정비토록 안내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